올 한해 전북교육거버넌스 의제 공유

도교육청, 제2차 본회의
전북특자도 교육특례
학령인구감소 대책 발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필요한 인재 육성 등
실제 사업에 반영돼

20일 전주 백리향에서 전북도교육청 전북교육거버넌스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교육거버넌스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전주 백리향에서 전북교육거버넌스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2023년도 추진실적과 전북교육거버넌스 의제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올 한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교육특례 및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의제, 학령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발굴해 왔다.

2개 분과로 운영된 소위원회에서는 특성화과 재구조화 및 이차전지 인재육성, 한옥고등학교 설립, 지역혁신사업분야(RIS) 고등학교 졸업생 선발 채용의 건, 문예체 특수목적 학교(가칭 전라북도문예체학교)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거버넌스위원회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필요한 인재 육성, 작은학교 통합시 대상학교 학생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지원 대책 등이 실제 사업에 반영됐다.

전북교육거버넌스 박승문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화하는 실질적 거버넌스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실현은 교육주체의 쇄신과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내 일처럼 나서준 거버넌스위원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전북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14개 시·군의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선정, 당연직 3명, 전북도청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위원 5명, 도의회 추천 위원 3명, 공개모집 위원 11명, 외부위촉위원 18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장은성 기자

생성형 AI 활용 교육 자료 개발

도교육청, e북 형태로… '교사와 함께 수업 디자인' 등 2종

전북도교육청이 e북 형태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는 교사들의 수업 역량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교사와 함께 수업을 디자인하다'와, 초·중·고교 학생들의 생성형 AI 개념 이해를 돕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인공지능윤리의식을 돕기 위한 '똑디와 함께하는 생성형 AI, 인공지능윤리의 모든 것' 등 2종이다.

교육 자료에는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방향 및 지침 △생성형 AI의 이해 및 활용 △교수·학습 설계 △인공지능윤리원칙 등 생성형 AI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이에 교사와 학생들은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 e북을 활용해 교실에서 손쉽게 생성형 AI를 이해하고, 또한 교육적 활용 역량과 인공지능윤리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료 개발에는 미래교육과 조민수 장학사를 비롯해 현직 초·중등 교사, 수업연구회 ETC(대표: 정순환) 외 3개 연구회가 함께 참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교사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수업 사례집과, 학생들을 위한 생성형 AI,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를 웹툰 형식으로 제작·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생성형 AI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실 현장의 올바른 활용과 생성형 AI의 윤리적 사용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면서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방향과 지침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생성형 AI를 교육적·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아름다운 교육공동체 제5회 수상자 8명 선정

내년 1월 중에 시상식

박성현

김현주

전현규

최원창

홍공숙

정이성

최정애

김필중

남궁옥

최혜영

안홍일

김종기

아름다운 교육공동체 상 위원회(위원장 두재균)가 20일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갖고 교육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온 교육자들을 격려하는 '제5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수상자는 박강덕 한국치즈과학고 교장, 박제원 완산고 교사, 김상숙 신흥중 교사, 황병석 남원초 교장, 이정화 익산시가족센터 선임팀원, 김정현 삼우초 교무실무사, 허진용 수성초 교감, 당북초 임두진 교사 등 모두 8명이다.

이 상은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될 교육자를 발굴해 스승에 대한 존경을 일깨워주고, 교육자들에게는 자부심과 보람을 심어주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은 교육자, 학부모, 시민활동가 등 30여 명의 시민공동체로 구성된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에서 한다.

수상자는 학생·교직원·학부모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활동 내용·현장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한편, 제5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 시상은 2024년 1월 중에 전북교육청 본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내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

승진 124명 · 전보 463명 등 총 783명 규모… 본인 희망 · 적재적소 유능한 인재 배치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 규모는 승진 124명(4급 4명, 5급 18명, 6급 47명, 7급 52명, 8급 3명), 전보 463명(4급 6명, 5급 33명, 6급 111명, 7급 205명, 8급 101명, 9급 7명), 신규임용 67명 등 총 783명이다.

이번 인사는 주요 정책 추진에 적합하도록 업무의 특성·직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했다.

먼저 익산교육문화회관장에 박성현 서기관, 김제교육문화회관장에 김현주 서기관, 부안교육문화회관장에 전현규 서기관, 교직원수련원장에 최원창 서기관이 전보 발령됐으며, 도교육청 총무과장에 홍공숙 서기관, 학생수련원 총무부장에 정이성 서기관, 학생해양수련원 총무부장에 최정애 서기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 김필중 서기관이 전보 발령됐다.

도교육청 청렴총괄·감사1담당에 남궁옥 사무관, 미래교육연구원 총무부장에 최혜영 사무관이 승진 발령되었다.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 과정에 안홍일 서기관, 김종기 사무관이 승진하면서 파견 발령되었다.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 전보는 본인 희망지역에 따라 기관의 업무형편과 대상자의 근무경력, 직무능력,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과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승진자와 신규임용 공무원 발령은 명부순위에 따라 결원기관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해 전북교육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동북아인문사회연구소 저술 도서, 올 세종도서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진이 저술한 '동북아, 니체를 만나다 -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동북아시아 사상의 전이와 재형성'(이하 '동북아, 니체를 만나다')이 2023년 세종도서 학술 부문 도서로 선정됐다.

세종도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양 및 학술 부문 우수도서 선정 사업이다.

올해 학술 부문에서는 총 2,896종이 신청해 심사를 거쳐 '동북아, 니체를 만나다' 등 390종이 최종 선정됐다.

'동북아, 니체를 만나다'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니체 사상이 동북아에 전해진 과정과 그 정신사적 의미를 탐색한 것으로 인문한국 플러스(HK+)사업인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다이멘션 토대 구축' 일환으로 저술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방시대 탄소중립 · 녹색성장 방향'

우석대, 기획 세미나 개최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20일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방향'을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시대를 맞아 능동적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엽 건국대 교수(전 대외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신동애 기타큐슈시립대학 교수는 '지방정부의 에너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전략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라영 전라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 연구위원이 전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라영 연구위원은 "전라북도는 녹색성장 산업육성과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통해 2018년 2575만 톤인 탄소 총 배출량을 2030년에 최대 43%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과 송영민 안양대 교수, 임성익 JB지산학협력단 사무국장, 강순화 스마트관광ICC 센터장, 김지훈 그린웨이 환경축제 감독, 엄무용 환경과지역연구소 대표, 라서현 라인교육연구소 탄소센터 리빙랩 사업 대표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은 "기획 세미나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의 녹색성장 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업단은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의 연구와 사업화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청소년 성장지원 민간 기관들과 손 맞잡다

도교육청, 전북도 · 우진문화재단 등과 협약 체결
자기주도성 강화 · 특자도 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내 민간 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전북도청, 전북도의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JTV전주방송, 우진문화재단, 뽕디이레농원과 2023년 전라북도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기관 대표자들을 비롯해 전라북도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는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자기주도성 강화 사업 △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성공개최 노력 △청소년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 및 협력 등이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청소년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 전라북도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도내 청소년 정책이 지역별·기관별 분절적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내 민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풍요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 함께 해준 각 기관의 대표님들께 매우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도내 청소년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청소년성장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나아가 지역의 주체로써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中 섬서성 주요 대학 유학생 유치 '속도'

섬서재경직업기술대학서 간담회… 글로컬30 주요계획 설명
서안외대 등 찾아 'JBNU 국제센터' 설립 방안 구체적 논의

전북대학교가 중국 섬서성 소재 대학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학생 5천명 유치 계획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박성용 국제협력부처장 등이 지난 14~17일 4일 일정으로 중국 섬서성 소재 대학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전북대 방문단은 섬서재경직업기술대학과의 중외합작학과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주요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용 처장은 학생들에게 학부 편입학 자격, 언어조건, 필링코리아(단기 한국문화체험)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전북대 방문단은 서안외국어대학, 섬서사범대학, 서안재경대학 등을 찾아 'JBNU 국제센터' 설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중국 학생들의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또 학부 입학 방법을 소개하는 등 전북대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